

챔스필드 재협상 시설투자비 놓고 '진통'

시-기아차, 50억 비용인정 두고 '줄다리기' 시, "투자대비 수익 많을 경우 돈 더 내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이하 챔스필드) 운영권을 놓고 광주시와 기아차의 막판 재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다. 그동안 시민단체의 특혜논란 제기에 양측이 재협상에 나섰지만 광주 새 야구장에 대한 기아차의 시설투자비 50억여원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19일 광주시에서 따르면 시는 최근 '야구장 운영 손익평가위원회' 3차 회의를 개최, 챔스필드의 2014~2015년 수익과 비용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손익평가위는 기아차가 광주 새 야구장 건설비용으로 300억원을 투자한 대가로 25년간 전방적인 야구장 운영권을 가져간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평가위는 시와 기아차에서 추천한 각각 2명, 한국야구위원회(KBO)에서 추천한 1명 등 5명으로 구성됐고, 이날 회의에서 시와 기아차는 2년간 챔스필드의 수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접근을 이뤘다.

양측은 야구장내 기아차 자사광고와 네이밍 라이트(naming right·경기장 명칭 독점사용권)를, 미완대 공간 등 '미반영수입'에 대해 각각 별도의 기관에 맡긴 감정을 토대로 실무진의 협의를 거쳤다. 기아차가 시에 제출한 수익자료에 미반영된 수입은 지난해 기준 23억원 가량으로 양측은 1년 평균수입을 45억원 안팎으로 추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각종 시설투자비를 '비용'에 포함시킬 것인지를 두고서는 의견이 엇갈리며 상당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기아 측은 야구장 개장 이후 2015년까지 2년 동안 50억원 가량을 관공객 편의를 위한 시설개선비로 사용했고, 이를 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는 당시 기아 측의 공사승인 요청에 '향후 손익평가시 비용으로 인정하기 힘들다'는 내용의 공문을 이미 보낸 바 있다며 '비용 인정불가' 입장이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자 평가위는 '타 구장의 경우 시설투자비를 비용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며 타 구장사례의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11월 18일로 예정된 야구장 손익평가위원회 4차 회의에서 이 문제가 정리되면 올 연말까지 재협상을 통해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기철 기자

광주·전남 SW융합클러스터 '본격화'

어제 출범식...산업기반 개선 등 기대

에너지산업에 소프트웨어(SW)를 융합해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SW융합시장을 창출을 지원할 광주·전남 SW융합클러스터 조성이 본격화된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빛가람혁신도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광주·전남 SW융합클러스터 출범식을 가졌다. SW융합클러스터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보통신산업 전략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남도와 광주시가 공동 응모해 사업이 선정됐다. 빛가람에너지밸리 조성사업과 연계해 에너지산업과 SW산업간 융합을 통한 초광역권의 SW클러스터를 구축한다. 전남도와 광주시를 비롯해 나주시, 함진, 기초전력연구원, 한전KDN, 녹색에너지연구원, 광주·전남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참여하며 빛가람혁신도시, 나주혁신산단, 광주 송암산단과 첨단산단을 에너지산업 SW융합클러스터로 조성한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SW융합기술개발사업(R&D), 기업성장 지원, 인력양성, 혁신네트워크 구축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광주·전남의 에너지산업 추진과 빛가람에너지밸리 조성사업에 탄력이 불을 지핀다. 우기종 전남도 정무부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광주·전남 SW융합클러스터 조성은 빛가람에너지밸리 조성사업 성공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지역의 취약한 SW산업기반 개선에도 일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마이크로 의료로봇센터 준공. 윤장현 광주시장이 19일 오후 전남대 첨단산업캠퍼스에서 열린 마이크로 의료로봇센터 준공식에 참석해 준공 세러머니를 하고 있다.

전남도, 농산어촌 개발사업 특정감사

개인사업 변질...보조금 집행 등 점검

일부 농산어촌 개발사업이 특정 개인의 사업목적으로 변질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자 전남도가 감사에 착수했다. 19일 전남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전남지역에서 13년 전부터 농산어촌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130개 사업에 총사업비 6,854억원(국비 4797억원·지방비 2,057억원)이 투입됐다. 농산어촌 개발사업은 권역·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이나 신규마을 조성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등이 포함돼 있다. 농산어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생활수준을 높이고 인구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개발사업이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추진되거나 마을 공동시설물과 편의시설이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감사관실은 11월 4일까지 특정감사를 실시해 농산어촌개발사업 보조금 집행내역과 사후관리 실태를 확인할 방침이다. 문제점이 드러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회수 조치할 계획이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보조금 집행과 정산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시설물 설치와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 점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시, 지적재조사 지구 추가 지정 북구 망월·광산 양산 등 2곳

광주시는 19일 북구 망월1지구와 광산구 양산지구 등 2개 지구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지구는 총 1,347필지, 89만8,969㎡로 광주시는 해당 사업지구의 조사·측량 대행자를 선정하고 재조사 측량으로 필지별 경계를 확정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관련법에 따라 2012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국비 지원 사업이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도면 경계를 현실경계로 바로 잡고 지적도면을 3차원 디지털로 전환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경계가 분명해져 분쟁해소와 명확한 재산권 범위설정, 지적측량 비용감소 등의 효과가 있다. 시는 2012년부터 국비 23억여원으로 24개 지구(9,716필지·748만㎡)를 지정해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0개 지구를 완료했다. /조기철 기자

광주시 정무특보 임용 '해 넘길라'

공모절차도 못해...전직 언론인 등 3명 '하마평'

윤장현 광주시장의 민 인적인 김 모 전 정책지원관의 비리 의혹과 관련, 사의를 표명한 정무특보보좌관 추임선에게 이복이 집중되고 있다. 노 전 특보가 사의를 표명한지 4주가 되지 않았지만 윤 시장이 장고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광주시에서 따르면 전 정책지원관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일괄사의를 표명한 시장측근 4명 중 박용수 비서실장과 노성경 정무특보 등의 사표가 지난 6일 수리됐다. 물론 지난 18일 윤기현 행정지원과장이 차기 비서실장으로 임명됐으나, 정무특보는 공모절차도 못하고 있다. 윤 시장이 신중론을 거듭하다 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선6기 들어 2년여만에 정무특보만 3

명으로 보인다. 이번 가운데 자칫 고인마 길어질 경우 당장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국회', 새해설계 등을 앞두고 정무기능 약화는 물론 불필요한 외압과 낭비가 넘칠 수 있어 되레 결정예를 겪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무특보 공석에 따른 가교 역할 차질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광주시 정무특보는 시장과 경제부시장의 대외 정무역할을 보좌하고, 시정전반에 걸쳐 국회·정당·지방의회와의 협의관련 보좌, 언론 등 공공기관, 시민사회단체와의 업무협조 등을 맡는 임기제공무원이다. 특히 지역정부가 2차, 양당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정무특보 역할은 더욱 중시되고 있다. /조기철 기자

전남 실감미디어지원센터 개소

체험시설 등 차세대 미디어산업 요람

현실세계를 근접하게 재현하는 실감미디어산업의 요람이 문을 열었다. 전남도는 19일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서 전남 실감미디어산업 지원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센터는 실감미디어 제작, 품질평가 등에 필요한 연구장비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제품과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도는 미래창조과학부 지원을 받아 2012년 9월부터 실감미디어산업 기반구축과 성과확산 사업을 추진해왔다. 센터는 초고화질(UHD)·360도 회전 특수촬영기, 복수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파노라마 형태로 변환하는 스티치 프로세서 등 실감미디어 장비 140여점을 갖췄다. 최신 기술교육과 스카프 등 일반인을 위한 실감미디어 체험시설도 운용할 예정이다. 센터는 기업 입주공간을 마련해 관련 중소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보탬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정근산 기자

전매 광고 안내

전남매일 광고는 전화 및 팩스로 받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구인·구직·모집·매매·부동산·공고·영업·분양·모임

· 광고국 062) 720-1016, 1017
· 팩스 062) 720-1020
· 이메일 jnm11000@hanmail.net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료로 신고하시기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전남 해남군 현산면 읍호리 산144-2
2. 분묘기수: 1기
3. 개장사유: 사유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무연분묘-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5. 개장장소: 전남 해남군 현산면 읍호리 산144-2
6. 공고기간: 2016. 10. 18. ~ 2017. 1. 18.(3개월)
7. 신고처: 김승재 (010-5839-5210)
8. 신고요령: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촬영)하고 신고사에는 매장된 분묘의 관계증명서류(종보, 제적등본, 사실확인서, 인감증명 등)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9. 기 타: 추가분묘발생시 본공고로 갈음함.
2016년 10월 19일
공고인 김승재

건강보험 적용시 131만원
보조됨(본인부담10%)

철저한 독일의 장인정신

“행복한 소리”

이제 여러분 곁에 독일보청기가 있습니다.

◆다채널 방식 / 100%디지털 고막형◆

▶ 전화소리가 선명하게 들립니다. ▶ 피드백 현상이 제거 되었습니다. ▶ 반영구적입니다.
▶ 음향 이득효과가 큼니다. ▶ 말소리가 정확하게 들립니다. ▶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 신경성 난청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잡음을 자동적으로 제거합니다.

독일보청기백화점

광천터미널 건너편 6층 (광명빌딩 603호)
HP 010-3634-0777
☎ 062) 222-1510 아라! 062) 573-5106

거문도
비금도

투자 하실분!

(주)오천개발 H.010-3605-5000

제일 오피스텔

“금매”

제일 오피스텔

- 광주 동구 수기동 23-2번지
- 20층중 4층, 38평 (실 22평)
- 사무실 적용, 전방출음
- 시세 1억
- 매매 - 5500만원 (일시불)
- 보 5백만원에 월세 50만원 가능

사정상 금매로 팝니다!
주인직매 H.010-3605-5000